

임나(任那) = 가야(伽倻)설 비판

이주한*

1. 들어가는 글
2. 임나일본부설을 보는 관점
3. 일본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강단사학계
4. 사료비판 없는 역사학
5. 임나일본부설의 실상
6. 임나일본부설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7. 나가는 글

1. 들어가는 글

19세기에 일제는 정한론에 입각해 임나(任那)가 가야(伽倻)라는 전제 하에 임나일본부설을 창안했다. 임나가 가야라면 『삼국사기』 「신라본기」·「백제본기」, 『삼국유사』 등에 임나에 대한 기록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일제 학자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사로 치부했다. 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들이 창작·조작되었다는 관점이 유일한 근거였다.

그러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이 만들어진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임나와 가야가 별개의 나라라는 증거는 많다. 임나일본부와 관련한 기록이 한국과 중국의 1차 사료 등에는 없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국의 사서들에는 그와 상반되는 기록들만이 있다. 일제가 한국 침략과 식민 지배를 위해 수립한 침략이론인 임나일본부설은 아직도 한국과 일본의 강단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학계에서 아무런 사료 비판 없이 정설로 유지되고 있다.

고대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거나 경영했다는 주장을 겉으로 내세우는 학자는 이제 일본에서도 거의 없다. 임나일본부설은 교역기관설, 외교기관설, 사신관설 등을 앞세워 통용되고 있다. 이 같은 논리도 일제의 쿠로이타 카즈미 등이 이미 주장한 내용들이다. 한사군이 식민통치기관이 아니라 문화중계지나 한(漢)의 전진기지였다는 주장과 같은 논리다. 그러나 한사군 문제와 마찬가지로 임나를 가야로 전제한 일제 학자들의 이론을 사료비판하는 것이 임나일본부설을 검토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임나가 가야라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임나일본부설의 실체가 드러난다.

한국의 강단사학계는 고조선과 한사군에 대한 사료가 많지 않아 사실상 1차 사료 등의 문헌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고고학에 기댔다. 그러나 임나일본부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으로 쉽게 반증할 수 있다. 한사군 한반도설은 일제의 주장뿐 아니라 19세기 이전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이 그릇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이 강단사학계가 자신들의 연구를 조선총독부가 아닌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궤변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임나일본부설은 100% 일제 학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 임나가 가야라는 1차 사료는 물론이고 내세울 고고학 유물과 유적도 없다.

2. 임나일본부설을 보는 관점

1980년대 이후 한일고대사를 연구해온 최재석(전 고려대 명예교수)은 “지금까지 거의 전부 임나사 내지 가야사 왜곡의 첫발은 임나와 가야가 동일국이라는 증거가 아무데도 없음에도 그 양자가 동일국가라 전제하고 논리를 전해시킨 데 있다”고 주장했다.¹⁾ 그는 고대 한일관계사의 진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려면 적어도 고대 일본의 정치상황, 즉 고대 일본천황(왜왕)의 왕권이나 고대 일본의 조선·향해 수준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고대 한일관계사의 규명은, 일본 천황의 왕권, 일본의 관위제, 일본의 조선·향해 수준, 일본의 강역 등 고대 일본의 정치상황과 일본열도의 여러 지명의 분석, 6세기의 한일관계, 663년 백강구 전투 전후의 한일관계의 분석을 전제

1) 최재석, 『고대 한국과 일본열도』, 일지사, 2000, 425쪽.

해야 한다는 것이다.²⁾

5~6세기에 야마토 정권은 통일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호족들과 같은 수준이었다. 야마토 정권의 왕권은 극히 미약했다. 당시 야마토 왕의 가옥은 같은 지역에 있는 한 호족의 거처보다 형편이 좋지 않았고, 비옥한 토지를 달라는 왕의 요청을 호족이 거절하는 상황이었다. 일본은 7세기에 도 조선·향해수준이 낮아 단독으로 해외를 오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사인(使人)을 신라에 보내 사문 지달 등을 신라국의 사인에 붙여 대당(大唐)에 보내고 싶다고 하였으나 신라가 말을 듣지 않아 사문 지달 등이 그대로 귀국하였다.³⁾

이달, 사인들은 신라 배를 얻어 타고 대당(大唐)에 보내 불교를 배웠다.⁴⁾

일본은 당나라에 파견할 사신을 신라에 보내 신라의 선박에 편승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신라가 이를 거절하면 당나라에 파견할 사신이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 같은 사정은 서기 8, 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서기 4-6세기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할 수는 없다.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대대적으로 진출해 활약하거나 군사적인 지원을 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성립할 수 없다. 7세기에 당에 파견된 大和倭(일본)의 학문승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신라 배를 얻어 타고 일본을 출발하고 일본으로 귀국했다. 당나라 유학을 마친 일본의 학문승은 신라 배가 향해하는 해상 루트인 당→울산→경주→울산→북규슈를 경유하여 그 루트의 종착항인 難波(大阪)에서 하선(下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7세기의 일본은 신라에 파견하는 사인도 신라 배를 얻어 타 출발하고 귀국했다. 신라는 장안→경주→왜에 이르는 전 해상 루트를 관리·장악하고 있었다.⁵⁾

7세기의 대화왜(일본)의 조선·향해 수준에 비추어 6세기와 그 이전의 대화왜의 향해 수준은 더욱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대화왜(일본)가 배를 이용해 일본열도를 통합하였다거나 한반도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속국으로 삼았다고

2) 최재석, 『고대한일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0, 245쪽.
3) 『일본서기』 제명(齊明3년, 657)조.
4) 『일본서기』 제명(齊明4년, 658)조.
5) 최재석, 『고대 한국과 일본열도』, 일지사, 2000, 55쪽.

하는 『일본서기』의 기사나 일본학자들의 주장이 허구임은 분명해진다.⁶⁾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은 서기전 24세기에 건국한 고조선에서 나온 나라들이다. 이 나라 사람들이 옛 일본 땅으로 이주해 백제, 가야, 신라 계통의 소국들을 세워 그들의 고국과 관련을 맺었다. 한반도의 가야와 임나가 별개의 나라라는 증거는 『일본서기』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된다. 또한 일본 곳곳에 남아있는 고고학·사회학·인류학·언어학·예술학적 자료 등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고대 일본 각지의 지명은 고구려·백제·신라 등 고대 한국의 국명으로 뒤덮여 있다. 『일본서기』에는 6세기에 백제의 3왕(무령왕·성왕·위덕왕)이 모두 각각 일본에 경영 팀을 파견해 그곳을 경영케 했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의 『당서』와 『구당서』에는 7세기 백강구 전투에 참전한 일본군이 백제왕의 군대였고 전쟁에 패하자 백제 왕자(충승·충지)가 일본군을 거느리고 나당연합군에 항복했다고 기록이 있다. 이런 사료에 의하면 6·7세기에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학자들은 고대 한국이 선박을 타고 온 일본의 속국 내지 식민지였다고 주장했고 이 같은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⁷⁾

3. 일본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강단사학계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져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공동으로 역사를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구성돼 2002~2005년까지 1기 활동이 있었고, 2007~2010년에 2기 활동이 있었다. 2기 활동 후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한·일 고대사 부분에서 양국 역사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이란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일본 역사학자들은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서 일부 활동했을 수는 있지만, 임나일본부라는 공식 본부를 설치해 지배활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한다.⁸⁾

한·일 고대사에서 양국 역사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임나일본부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사항이다. 무의미한 동의다. ‘일본부’는 8세기에 일본서기의 편찬자가 쓴 명칭이다.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서기 4-6세기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었다.

6) 최재석, 『고대 한국과 일본열도』, 일지사, 2000, 55쪽.

7) 최재석, 『고대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10, 283쪽.

8) 『한겨레신문』, 2010년 3월 22일.

일본이라는 국명은 7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한다. 존재하지도 않은 나라가 다른 나라에 어떤 기구를 설치할 수는 없다. 일본이 통일국가를 이루기 시작한 것은 8세기 이후다. 서기 4-6세기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한일 역사학계는 중요한 것이다. 임나일본부라는 이름의 문제는 일본 학계에서 애초부터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임나가 한반도 가야라는 한일역사학계의 일치된 동의다.

일본 학계는 임나일본부의 성격을 정치적, 군사적인 성격에서 외연 상 교역과 외교를 담당했던 기관을 앞세우는 것으로 전환했는데 한국이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한사군을 문화중계지라고 주장하듯이 임나일본부설도 외교론, 교역론, 사신론 등을 마치 새로운 이론인 것처럼 주장한다. 가야사를 연구한 고고학자 안춘배(전 부산시 문화재위원장)는 임나일본부설이 여러 모습으로 변모하며 끈질기게 유지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민주화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상의 수립과 함께 고대사연구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나, 한·일간의 고대관계사 부분에 있어서만은 종래의 견해에 대한 골격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일본의 고대사연구가 유독 한일고대관계사 부분에만 이렇게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일본의 역사에서, 일본에 처음으로 하나의 통일된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오늘의 일본으로 발전하는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야마토정권이 4~5세기에 있어서 일본의 남한경영(南韓經營)을 전제로 하여 성립 발전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왔기 때문에 풀이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일본역사학계의 한일고대관계사에 관한 잘못된 이해는, 새롭게 드러나는 한일고대관계사의 실상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그들이 구축해온 일본고대사의 체계가 송두리째 허물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진퇴유곡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에 직면함으로써,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계속적인 수정을 시도하여 ‘임나일본부설’의 내용은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대에 한반도 남부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었다는 주장만은 끈질기게 고수하고 있다.⁹⁾

안춘배는 일본 측의 자료를 가지고 한국 내에서 출토된 왜계 유적·유물들

9) 안춘배, 「고고학 상에서 본 임나일본부」, 『재상륙한 임나일본부설』, 2016, 역사관련 단체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69쪽.

을 보면 모두 56개의 유적·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일본 내에서 출토된 대륙계(거의가 한국계) 유적·유물의 숫자는 한국계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구마모토(熊本) 지역을 빼도 455개나 된다고 확인했다. 이는 일본의 29개현만을 대상으로 한 131인의 일본인 고고학자와 2개 기관의 조사였는데, 이는 당시 문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흐른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일본서기』를 통해 황국사관의 초석을 창출한 쿠로이타 카즈미는 1932년 개정 국사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서기에는 흙명기에 처음으로 안나일본부라고 기술하였지만, 임나일본부가 김해에서 안라(안라, 지금의 경안 함안) 땅으로 옮긴 것은 아마도 계체시대일 것이다.” “김해와 함안은 일본부의 소재지였다” 이렇게 임나를 함안으로 연결한 것은 황국사관의 기초자 쿠로이타 카즈미였다. 일본 학계는 임나일본부의 활동 시기를 줄여서 말하기도 한다. 강단사학계의 원로 노태돈(서울대 명예교수)의 주장을 보자.

일본이란 국호는 7세기 후반 사용되었다. ‘임나일본부’란 명칭은 『일본서기』의 분주(分註)에 나오는데, ‘안라일본부’라는 명칭도 보이나, 당시의 정식 명칭은 ‘재안라왜신등(在安羅倭臣等)’이다. 6세기 들어 백제와 신라가 가야지역에 압박을 가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특정한 기관이나 기구 명칭이 아니라, 아라가야에서 활동하던 인물을 집단적으로 칭한 것이다. 그들이 활동하며 머문 지역은 안라였다. 그 구체적인 구성원은 왜의 왕실에서 파견한 이들, 북규슈 지역의 세력가, 가야계 인물 등이다. 당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주민들 간에는 상호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졌다.¹⁰⁾

노태돈은 쿠로이타 카즈미의 주장을 따랐다. 임나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한반도 남부에 왜의 왕실에서 파견한 이들, 북 규슈 지역의 세력가 등이 활발하게 활약했으면 된다. 한반도를 지배하지 않았어도 고대에 일본이 우위에 있었다는 근거를 확보하면 얼마든지 임나일본부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태돈은 이렇게 말한다.

4세기 말 이래로 왜의 세력 또는 왜인들이 가야지역에서 활동하였고, 때로는 단기적인 군사 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왜국의 한반도지

10) 노태돈, 『한국고대사』, 경세원, 2014, 98쪽.

역에 대한 영역지배는 없었다. 임나일본부를 왜의 조정이 가야지역에 설치한 통치기관으로 상정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¹¹⁾

4. 사료비판 없는 역사학

4세기 말 이래 왜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활동했다면서 거기에 군사 활동을 넣었다. 이것이 쿠로이타 카즈미, 쓰다 소키치, 쓰에마쓰 등이 처음부터 주장한 사실이다. 영역 지배 없는 군사 활동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군사 활동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만약 지금 한국에서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이 군사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한편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자인 김현구(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런 군사 활동을 어떻게 보는지 검토해보자.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507년에서 562년 사이에 백제가 야마토정권에 파견한 24회의 사자 중에서 백제의 요구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경우는 14회라고 되어 있다. 그중에서 임나에 관한 내용은 5회이고 나머지 9회는 전부 원군이나 군수물자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당시 야마토정권과의 관계에서 백제가 일관되게 추구하던 것은 군사원조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백제의 군원 요청에 대해 야마토정권은 9회에 걸쳐 원군이나 말, 배, 활과 화살, 식량 등의 군원을 제공하고 있다.¹²⁾

이에 대해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은 김현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조선사편수회보다 더한 논리를 전과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백제는 졸지에 야마토 조정에 군사 원조를 구걸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김현구는 일본 유학 시절 야마토 정권의 수도였던 나라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같다. 백제가 곧 그 자리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그가 쓴 『김현구 교수의 일본인 이야기』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한국의 고대사 학계가 식민사학 일색으로 초록은 동색이다 보니까 이런 매국·매사 논리를 전개해도 비판하는 학자가 없다.¹³⁾

11) 노태돈, 위의 책, 98-99쪽.

12)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작과 비평사, 2010, 142-143쪽.

13) 이덕일, 『우리 안의 식민사관』, 만권당, 2014, 345-346쪽.

누구나 자기 학설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든 논거가 타당하고 명확해야 한다. 『일본서기』를 제대로 사료비판하지 않고 주장을 펴는 것은 강변이지 이론이 아니다.

북한 학계에서는 일본 학계가 임나일본부설이 허황하고 잘못된 학설이라고 슬쩍 양심적인 분위기를 풍기고는 결론에서 이를 뒤집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야마또 정권의 이른바 군사력이 조선에서 활동한다는 내용 자체가 《임나일본부》설의 기본골자일진대 앞에서는 긍정하는척하다가 뒤에 돌아서서는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니 그것을 무슨 심보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¹⁴⁾

야마또 정권의 군사력이 조선에서 활동하는 것이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강단사학계는 학설과 학설을 유지하는 방식까지 일본에서 가져온다. 강단사학계는 ‘임나일본부’, ‘안라일본부’, 재안라왜신등‘ 등 이름은 개의치 않는다. 한사군이 사실 식민통치기관이 아니라 전진기지 또는 ‘중계지’는 논리가 중요하듯이 임나일본부설도 같은 논리를 구사한다.

노태돈이 2014년에 낸 책에서 서술한 한사군을 보면 강단사학계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한 제국의 동방을 향한 전진기지인 낙랑군의 문화는 그 고분 출토 유물이 전하듯 우수하고 화려한 면을 지녔다. 한반도의 남부와 일본열도의 여러 소국들은 낙랑군의 교역을 통해 한의 문물을 수입해 갔으며, 아울러 낙랑군은 교역을 통해 여러 소국에 통제력과 영향력을 뻗쳤다.¹⁵⁾

한사군이 “한 제국의 동방을 향한 전진기지”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야 중국이 한국에 문명을 전파하고, 한국의 “여러 소국에 통제력과 영향력을 뻗쳤다”는 결론에 귀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야로 설정된 임나, 즉 한반도 남부가 일본의 전진기지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이유도 독도가 침략의 전진기지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지도사업이 국회 동북아

14) 조희승, 『가야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4, 682-683쪽.

15) 노태돈, 『한국고대사』, 경세원, 2014년, 52-53쪽.

특위 등의 활동으로 중단되지 않았으면, 일본 극우정부는 싸우지도 않고 한국 침략의 교두보를 손에 넣는 상황이었다.

5. 임나일본부설의 실상

한일역사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김태식은 『한국사 시민강좌』에 게재한 논문인 ‘고대 한일관계사의 기본 흐름’ 결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을 정리해볼 때, 고대 한일관계사의 기본 흐름은 중국 대륙에서 기원한 선진 문물과 학문 등의 고급문화가 한반도 남부에서 정착된 후에 지속적으로 일본열도로 전수되었다는 점이다.¹⁶⁾

임나일본부설의 요체는 ‘한반도 육교론’이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간이역에 불과했다는 말이다.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국을 경유하여 중국문화를 수입하였다.” “일본이 중국의 문화를 수입할 때 임나와 낙랑은 일본과 중국의 중계지 역할을 하였다.” 쓰에마쓰가 그의 책 『임나홍망사』에서 한 발언들이다. 중국의 선진 문명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왔다는 것이다. 한국사의 ‘반도적 성격론’을 내세운 미지나 쇼우에이(三品彰英)는 『조선사개설』에서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가까이 부수된 이 반도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반드시 대륙에서 일어난 변동의 여파를 입음과 동시에, 또한 주변적 위치 때문에 항상 그 본류로부터는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대륙에 부수된 주변부 반도는 정치적·문화적으로 반드시 대륙에서 일어난 변동의 여파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항상 본류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제 역사학자들이 규정한 한국사의 성격이고, 강단사학계의 정설이다. 김태식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다.

고대 한국은 일본에 관한 문헌 사료를 거의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기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대 한일 고고학 자료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 문헌 사료를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고대사 자체에 대해서도 일본 학계의 수준을 넘어서는 한국 학계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¹⁷⁾

16) 김태식, 『한국사 시민강좌』 40호, 2007, 74쪽.

공허한 말이다. 고대 한국과 일본에 관한 기사가 『삼국사기』에 있다. 임나일본부와 관련한 사실이 『삼국사기』 등의 문헌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 기록은 일본열도에서 있었던 일을 조작한 기사이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부정하면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기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쓰다 소키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고대 한일 고고학 자료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자고 한다. 왜 그럴까? 자신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문헌 사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1차 문헌사료는 전무한 대신 지금의 하북성 지역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중국 문헌 사료가 쏟아지자 모른 채하고 고고학으로 달려간 것과 같은 사정이 임나일본부설에도 반복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김태식의 글을 보자.

이제 한일 양국의 고대사 연구자들 사이에는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한다고 공언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임나일본부설은 20세기 전반기를 거치면서 『일본서기』, 『송서』 「왜인전」, 광개토왕릉비문 등의 검토를 통하여 뒷받침된 당시의 학문적 성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일본의 조선 침략 및 식민지주의를 긍정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그것이 21세기인 지금에 와서 설득력을 잃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¹⁸⁾

이글에서 “『일본서기』, 『송서』 「왜인전」, 광개토왕릉비문 등의 검토를 통하여 뒷받침된 당시의 학문적 성과인 것처럼 보이지만”이라는 말을 눈여겨 봐야한다. 『일본서기』는 물론, 『송서』, 광개토왕릉비문 등에 대한 일체 학자들의 주장이 학문적 성과인가 있는 것처럼 고 우회적으로 서술했다. 『일본서기』는 야마토 정권이 천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만든 책으로 조작과 과장, 윤색이 많아 철저한 사료비판을 통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야 할 사료다. 광개토대왕비문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사료다. 이 비문의 주체는 고구려다. 임나일본부설과 관련돼 거론되는 신묘년 기사를 보자.

而後，以辛卯年□(不)□(貢)□(因)，破<百殘>□□<新羅>以爲臣民。

17) 김태식, 위의 책, 75쪽.

18)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2010, 128쪽.

“(백제, 신라는 본래 고구려에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후에 조공을 보내지 않아 신묘년에 백제를 궤하고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된다. 고구려가 주어지 왜가 주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 당시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하고 신라를 복속했는데, 『일본서기』에는 관련 사실이 전혀 없다. 비문은 고구려 주체의 천하관을 기록한 것으로 임나일본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송서』의 기사도 허구적인 과장에 불과하다. 왜왕이 남송에 ‘왜,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일곱 나라 제 군사 안동대장군’이라는 벼슬을 청한다. 남송의 황제는 백제를 빼고 나머지 여섯 나라의 군사 안동대장군과 왜국의 왕이라는 벼슬을 하사했다고 한다. 중국은 중화사관에 입각했고 왜왕 작호는 왜가 스스로를 과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송은 백제 이외에 이해관계가 없어 중화주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승인했다. 진한, 모한은 5세기에는 사라진 나라들이다. 일본인 학자들이 이를 왜왕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것으로 조작했다. 일본인 학자들이 백제가 일본에 바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칠지도도 어불성설이다. 4세기에 백제가 하사한 칠지도는 고도의 제련기술로 만든 철제품이다. 4세기에 왜는 철을 제조하지도 못했다. 동아시아의 강국 백제가 일본에 칠지도를 바칠 일은 없었다. 칠지도 명문은 백제의 왕세자가 야마토왜의 후왕(侯王)에게 하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⁹⁾

김태식이 자신의 대표작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에서 임나와 관련해 『일본서기』 기사에 신빙성이 있다며 한 말이다.

요컨대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6세기의 후기 가야 연맹을, 왜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²⁰⁾

김태식은 임나를 가야로 단정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가야를 왜가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는 것이 근거다. 김태식은 임나일본부가 아니라 ‘안라왜신관(安羅倭臣館)’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530년대 중엽에 백제가 친 백제계 왜인관료를 안라에 배치했는데 이것이 대 왜 무역의 중계기관인 안라왜신관이라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자인 김현구(고려대 명예교수)의 『임나

19) 김명옥·이주한·홍순대·황순종,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 만권당, 2017, 275-276쪽.

20)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 푸른역사, 2002, 667쪽.

일본부설은 허구인가』는 제 1장 “‘임나일본부설’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한다. 여기서 그는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이 도리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²¹⁾ 임나일본부설이 허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 전에 대중의 역사의식을 질타한다. 그리고 임나를 가야로 그런 지도를 보여준다. 그가 보여주는 지도에서 임나는 지금의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 일부를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서기에 한반도 남부경영의 중심처럼 되어 있는 ‘임나가야’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일까”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임나가야의 위치에 대한 서술이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서기』에는 임나가야가 한반도 남부지배의 거점인 것처럼 되어 있다.²²⁾

그러나 『일본서기』에는 임나가야가 한반도 남부경영의 중심이나 한반도 남부지배의 거점인 것처럼 기록한 기사가 없다. 사실을 왜곡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송서』나 『광개토대왕비문』은 물론 『일본서기』의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서도 일본 측 주장은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소에 부치고 있다.”²³⁾ 임나일본부설에 의거해 갖다 붙인 『일본서기』 기사와 『광개토대왕비문』 『송서』에 근거가 있다는 말이다. 『광개토대왕비문』에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하러 남하하는 기사에 “...그 배후를 급히 추격해서 임나가라(任那加羅)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니 성이 곧 귀복했다”는 기록이 있다. 『광개토대왕비문』에서 가장 마모가 심한 부분이 이 기사의 앞뒤다. 중국과 일본에 불리한 내용이라 예전부터 조작설이 제기돼왔다. 조작이 아니라 해도 ‘성이 귀복했다’고 했으니 임나가라는 서기 400년에는 사라진 것이다.²⁴⁾ 『송서』에는 임나와 가라를 각각 별개의 나라로 기록했다. 이는 『양서』와 『남사』에도 나온다.

21)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2010, 15쪽.

22) 김현구, 위의 책, 20쪽.

23) 김현구, 위의 책 30쪽.

24) 황순중, 『임나일본부는 없었다』, 만권당, 2016, 75쪽.

6. 임나일본부설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임나일본부설의 또 다른 논자인 이영식(인제대 교수)과 주보돈(경북대 교수)의 주장도 살펴보자.

분국론은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열도로 비정하였던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된다. 임나(任那)라는 용어가 『일본서기』에 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서기』가 조작한 용어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료에서도 ‘임나’의 용례는 확인되기 때문이다. 『한원(翰苑)』에 인용된 중국의 인문지리지 「괄지지(括地志)」에 의하면 한반도 남부의 가야지역을 총괄하여 임나라고 하고, 가라, 임나 등의 국명을 언급하고 있다. 「광개토왕릉비」에 의하면 400년에 고구려 군이 정벌했던 지역 명으로서 임나가라(任那加羅)가 보이는데, 연구자에 따라 고령 혹은 김해로 보는 차이는 있지만, 가야지역을 가리키는 것에는 다른 견해가 없다. 『삼국사기』 열전은 7세기 중엽의 신라사람 강수(强首)를 임나가라(任那加良) 출신이라고 전하고 있다. 강수의 출신지가 충주(中原京)로 되어 있음을 상기한다면, 일본열도의 출신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대가야(고령)의 후예로서 그의 조상대에 신라에 의해 충주로 사민(徙民)되었던 인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창원의 봉림사에 있었던 「진경대사탑비」(923년)에도 신라사람 진경대사(眞鏡大師)가 임나왕족(任那王族)의 후예였음을 밝히는 구절이 확인된다. 이 역시 가야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며, 일본열도의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일본열도에 가야계통의 분국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본서기』에 기록된 임나일본부의 관련 사료는 가야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²⁵⁾

분국론은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된 임나를 한반도의 가야가 아닌 일본열도에 비정한 것이 치명적이 약점이라고 한다. 『일본서기』와 고고학 자료 등에 의거한 분국론의 입론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다. 임나라는 용어가 조작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도 주제에서 벗어난 주장이다. 『한원』에 임나와 가야는 마한(慕韓)의 땅이고 가야와 임나로 기록하고, 또 순서를 바꿔 임나와 가야로 기록했듯이 가야와 임나는 별개의 나라다(加羅任那 昔新羅

25) 이영식, 「임나일본부의 허상과 가야제국」,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2』, 주류성, 2017, 122-123쪽.

所滅 任那加羅 慕韓之地也, 『翰苑』). 『한원』에 임나가 한반도에 있었다고 기록한 것은 없다.

광개토태왕비의 임나가라(任那加羅)도 임나와 가라 두 나라이다. 임나와 가라가 고령 혹은 가야로 보는 차이는 있지만 가야지역을 가리키는 것에는 다른 견해가 없다는 것은 일본학자들 외의 견해를 부정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강수(強首)는 임나에서 태어나 가야를 거쳐 중원경으로 이주한 이의 후손이거나 자신의 이력으로 볼 수 있다. 임나가라를 한 나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진경대사가 임나왕족의 후예라는 것도 임나가 가야라는 것과는 무관하다.

임나는 『일본서기』 기사를 통해서도 가야일 수가 없다. 임나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일본서기』 스진(崇神) 65년조에 있다.

任那者 去筑紫國二千餘里 北阻海以在鷄林之西南(『일본서기(日本書紀)』 스진(崇神) 65년)

임나는 북큐슈(北九州)에서 2천여 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鷄林:신라)의 서남쪽에 있다. 또한 가야는 532년에 멸망했다. 562년에 대가야 토벌평정을 가야 멸망으로 보더라도 가야는 562년까지만 존재했다. 그러나 『일본서기』는 임나를 646년까지 존재한 나라로 기록했다. 이렇듯 사료에 의하면 가야와 임나는 동일국이 아니다. 가야가 개국한 것은 서기 42년으로 『삼국유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임나가 개국한 해는 불분명하다. 사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후보돈도 마찬가지다.

임나는 개념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우리 측 사서에 보이는 가야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그 위치는 현재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서 지역의 경상남북도 일대를 가리킨다고 보면 무난하다. 뒷날 대체로 경상우도(慶尙右道)라 일컬어진 지역에 해당하는 셈이다. 『일본서기』에 보이는 몇몇 지명에 대한 비정을 통하여 임나의 영역이 현재 전남 동부지역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다만 임나란 용어는 광개토태왕비를 비롯하여 『삼국사기』 열전의 강수전(強首傳), 10세기의 진경(眞鏡大師) 비문 등 우리 측 문헌에도 보이므로 그 자체는 일본의 창작이 아님은 명백하다. 임나 자체는 당연히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명칭이다.²⁶⁾

강단사학계의 주장이 얼마나 사상누각인지 알 수 있다. 이영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분국론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본서기』에 보이는 임나일본부의 문제는 한반도 남부의 가야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없다.²⁷⁾

그는 임나일본부설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현대적 국가 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²⁸⁾

이영식은 『일본서기』에 대한 사료비판도 일단 미루자고 한다.

일본학계가 먼저 시작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지배의 주체만을 왜에서 백제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서기』의 정밀한 사료비판은 다음 문제일 수 있다.²⁹⁾

이영식의 주장 그대로 강단사학계는 일본학계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 들여왔다. 지배주체를 왜에서 백제로 바꾼 것은 눈가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백제를 사실 상 지배한 것은 왜라는 것을 감추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학자가 고대에 일본이 한국을 경영했다고 드러내놓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김현구는 어떻게 할까?

『일본서기』의 507년에서 562년 사이의 기록 가운데 야마또정권과 한반도 각국의 인적·물적 교류를 조사해보면 신라·고구려와는 각각 왕복 2회의 교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교류 내역을 보면 야마또정권은 신라나 고구려에 전혀 사자를 파견하지 않은 반면 신라와 고구려는 각각 2회씩 야마또정권에 사자를 파견했다. 임나와는 왕복 8회의 교류가 있었는데 그중 야마또정권은 3회에 걸쳐 임나에 사자를 파견한 것으로 씌어 있

26) 주보돈, 『임나일본부설, 다시 되살아나는 망령』, 역락, 2012, 50-51쪽.

27) 이영식, 앞의 책, 120쪽.

28) 강만길 외 지음, 『우리 역사를 의심한다』, 서해문집, 2002, 46쪽.

29) 이영식, 앞의 책, 47쪽.

다. 한편 백제와의 교류를 살펴보면, 왕복 39회에 걸쳐 사자를 교환하고 있는데 야마토정권은 15회에 걸쳐 백제에 사자를 파견하거나 군사원조를 제공한 반면 백제는 24회에 걸쳐 야마토정권에 선진문물을 제공하거나 사자를 파견하고 있다.³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보다 많이 사자를 파견했다고 한다. 일본이 상국(上國)이라는 말이다. 『일본서기』 기사를 사실로 전제한 주장이다. 6세기 당시 삼국과 야마토 왜의 사신들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혀 없다. 야마토왜가 백제에 15회 사신을 파견하고 백제는 일본에 24회 파견했다는 것도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관련 사실이 없다.

임나일본부설은 7세기-8세기에 만들어진 『일본서기』를 사료비판하지 않고 만들어진 설이다. 왜의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하고 가라 등 일곱 국가를 평정한 후 4세기-6세기에 임나일본부를 가야에 설치했다는 조작 기사다. 그러나 6세기에 고구려는 23대 안원왕, 24대 양원왕, 25대 평원왕의 강성기였다. 백제 또한 26대 성왕(523-554), 27대 위덕왕(554-598)의 전성기였다. 신라도 23대 법흥왕(514-540), 24대 진흥왕(540-576) 25대 진지왕(576-579) 시대를 맞아 국력을 확장하던 시기였다. 반면 야마토정권은 통일왕조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라를 통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마토왜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상국일 수는 없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 3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3국은 서로 야마토 정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³¹⁾

강성국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통일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 호족이 난립해있던 야마토정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김현구는 주장한다. 『삼국사기』에는 관련기록이 전혀 없다.

30)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2010, 131쪽.

31) 김현구, 위의 책, 140쪽.

7. 나가는 글

임나일본부설은 한국사의 체계와 맥락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임나일본부설은 고조선을 보는 시각은 물론 한사군 한반도 설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조선을 전공한 송호정(한국교원대 교수)의 주장을 보자.

“고조선사가 하나의 일괄된 입장으로 정리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 고대사의 발전 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기인할 것이다. 대개 삼국 초기부터 고대 국가 성립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고조선도 일찍부터 발전된 국가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국 초기는 아직 부가 중심이 되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를 수립하지 못했다고 보는 논자들은 고조선을 삼국 초기 단계와 비슷한 초기 국가 단계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식 차이가 고조선사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³²⁾

고조선에 대한 연구가 1차 사료 등에 근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이다. 고조선이 실재한 역사와 무관한 신화였던 것은 1차 사료와 고고학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삼국이 서기3~4세기경까지 국가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삼국사기』·『삼국유사』 불신론에 있었던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과학적인 사료비판은 한국사의 판도를 뒤바꿀 것이다.

한사군 한반도설과 임나일본부설은 거의 동일한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비교표를 참고로 첨부한다.

한사군 한반도설과 임나일본부 한반도설 비교³³⁾

주요사항		한사군 한반도설	임나일본부 한반도설
1	한국사의 기본 성격	중국의 영향과 지배를 통한 타율성·정체성의 역사. 한국은 주체성이 없다. 고조선 역사 부정. 한사군이 한반도 서북부에 있었다고 전제. 한국사의 주체를 중국과 일본으로 설정	중국과 일본의 영향과 지배에 의한 타율성·정체성의 역사. 고조선 역사 부정.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을 잇는 육교.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 한반도 남부는 임나일본부가 지배. 임나를 한반도의 가야로 전제
2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통감』	역사와 무관한 신화로 봄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조작·창작	동일

32) 송호정, 『단군, 만들어진 신화』 산치림, 2002, 155쪽.

33) 이주한, 『위험한 역사시간』, 인문서원, 2015, 302-303쪽.

	등의 고조선 건국 기사	으로 규정	
3	한국문명의 시작	중국의 유이민 위만이 고조선을 장악하고 중국의 철기문명을 도입하면서 시작	동일
4	본격적인 한국사의 발전	한사군을 통해 본격적으로 발전	동일
5	1차 사료 등 문헌사료 증거	전혀 없음,	동일
6	고고학 자료	전혀 없음,	동일
7	주장의 근거	중국 역도원의 수정주(패수 위치 잘못 비정), 조선시대유학자들의 오역(1차 사료 아님),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자료.	일제 학자들의 일방적인 주장
8	역사학계에서 제시하는 근거	일제의 어용사가 쓰다 소키치, 아미니시 류, 이케우치 히로시 쓰에마스 야스카즈 등과 이병도의 주장. 조선총독부가 조작한 한사군 유물	동일
9	한국과 중국의 문헌 기록에 대한 관점	삼국사기·삼국유사 초기기록 불신론에 근거, 주장에 불리한 사료들을 근거 없이 폄하하거나 위서로 단정	동일
10	증거와 반론에 대한 대응	불리한 증거에 침묵. 기존 정설에 입각한 폐쇄적인 해석. 문헌사료와 고고학 자료에 대한 과학적 비판을 국수주의·제야사학 프레임으로 매도. 학계 카르텔을 동원한 모함과 인신공격. 토론과 논쟁을 회피.	동일
11	한민족의 정체성 형성	삼국시대 후반, 또는 고구려·백제 멸망 후 대당 항쟁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봄	동일
12	주장의 근거 사료	조선총독부가 조작한 한사군 유물	일본서기, 광개토태왕비문, 칠지도 등을 황국사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사료비판 없이 건강부회
13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논리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 한사군 문화중계지설 등	부체제론·원삼국론·임나일본부백제중계론·교역론·외교론·사신론 등
14	조선총독부사관이 재생산되는 이유	국사교과서가 정설화,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서울대학교·한일역사공동위원회 등 한국의 정부기관과 한국주류역사학계, 고고학계의 주장, 초중고 등 교육계와 언론계의 지지.	동일
15	정부기관의 연구기금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매년 수백억 원의 국가	동일

		예산을 독점. 학계를 장악해 학설을 재생산. 세계 각국에 전파	
16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역사화해를 내세우며 학계에서 해결할 문제, 외교적인 문제로 호도.	동일
17	북한학계의 연구	학문적인 검토 없이 학계정설과 다른 부분은 가치 폄하, 일본과 중국 학계의 주장에 의존	동일
18	동북공정과 독도문제에 대한 대중의 역사 인식 확대와 참여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 중국과 일본을 자극한다며 전문가들이 해결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함	동일